

불교계 최초 불교박람회 열린다

‘2006 한국불교박람회’ 서울무역전시관 23~26일



한국불교박람회에서 선보이는 명은아트(위)와 가을산선제의 다구.

군포교 기금 마련 전시회 눈길

차명상 제품, 불교미술품, 불상, 등기와, 달마도, 법고, 불단, 답집, 자사호, 선무도, 염주, 수련복, 납골시설. 이 모든 불교 관련 상품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불교계 최초의 불교문화상품 박람회인 2006한국불교박람회가 3월 23~26일 서울무역전시관(SETEC) 전관에서 열린다. 110여개 업체가 250개 부스를 차려 불자들을 만난다. 불교방송과 (주)제이컨벤션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한국불교박람회는 사찰건축, 사찰유지보수, 침단포교, 전통등·차, 사찰음식, 장례문화(납골), 행사기획, 불구 및 불교용품, 종단 및 교육, 사찰행정지원 등의 코너가 마련된다. 제1전시관은 사찰건축 중심으로 꾸며진다. 제2전시관은 차 등 불교문화의 장으로, 제3전시관은 불교체험의 장으로 구성된다. 개막행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며 11시 30분에 개장한다.

박람회 기간 중 마련되는 문화행사들도 풍성하다. 우선 군포교 기금 마련 등을 위해 열리는 특별 전시 코너가 눈길을 끈다. 설봉 스님 도예전, 혜안 스님 서각전, 귀일 스님 기와전, 전통등 전시회, 한 지공예 체험전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명원문화재단의 다도시연은 25일 오후 1시에, 선무도 시연은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법륜 스님(경

토회 지도법사)은 오후 3시부터 ‘환경 및 국제불교’를 주제로 대중법회의 장을 펼친다.

26일에는 오후 1시에 법현 스님(열린선원장)의 주례로 불교전통혼례의식이 시연되고, 오후 2시 15분에 LMB싱어즈의 공연이 박람회장을 흥겹게 달굴 계획이다. 오후 3시에는 지광 스님(능인선원주지)이 ‘변화하는 세계,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법문에 나선다.

한편 불교방송은 행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성전 스님의 행복한 미소’(23일 오후 3시), ‘김병조 교수의 배우머리 노래방’(24일 오후 2시) 등의 공개방송을 개최한다.

장려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장은 “한국불교박람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대신 업체들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는 형태를 취해 불자 누구나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02)736-0993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지하철 1호선’ 3000회 공연

불자 연출가 김민기 대표(극단 학전)가 12년째 진두지휘해온 특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 3월 28~30일 서울 대학로 학전그린소극장에서 역대 배우 90명이 참여해 3000회 기념공연을 가진다.



‘지하철 1호선’은 1994년 5월 14일 첫 무대를 가진 이후 145명의 배우가 작품을 거쳐 갔다. 60여만 명의 관객이 공연을 봤을 정도로 소극장뮤지컬을 이끌어난 ‘지하철 1호선’은 국내 최장기 공연 뮤지컬이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라이브 밴드를 소극장 뮤지컬 무대에 선보이기도 했다.

김민기 대표는 지난 겨울 만해마을 창작집필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일 예불에 참석할 정도로 불심이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제대 후는 묘인 백담사를 찾아 밤길을 가다가 죽을 뻔한 일화도 있는 등 불교와의 인연이 깊다. (02)763-8233

강지연 기자

단신

스리랑카 국립무용단 내한 공연

스리랑카의 국립전통무용단이 3월 25일 내한해 부처님과 자연에 대한 작품을 30일부터 60여 일간 공연한다. 국제불교교류협회와 불교상조(국인상조)가 스리랑카 정부 지원으로 무용단을 초청해 공연하는 것이다.



이번 공연은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 및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불교교류협회 관계자는 “사찰 문화회관 등 어디에서라도 공연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30일 오전 1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난민돕기 기금마련 공연을 시작으로 경주 동국대(일정미정), 4월 16일 삼보사 낙성법회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011-581-8851

K옥션 ‘백남준 스페셜’ 마련

K옥션의 3월 미술품경매에 ‘백남준 스페셜’이 마련된다. 백남준의 유작 ‘그린1’을 비롯해 백남준과 첼리스트 무어맨의 ‘오페라 섹스트로니크’ 퍼포먼스 등이 담긴 35장의 사진이 선보인다.

3월 22일 오후 5시에 서울 사간동 K옥션에서 열리는 3월 미술품 경매에는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주요 작품과 고미술품, 명성있는 작가들의 해외미술품 등 총 14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경매에 앞서 15~21일에는 3월 경매 출품작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02)2287-3600

‘불교문예’ 2006년 봄호 발간

제11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소감과 심사평이 담긴 <불교문예> 2006년 봄호가 나왔다.

청화 스님은 권두언에서 “육식은 시가 통할 길을 막고 시가 넘어갈 길을 높이고, 시가 스며들 틈새마저 없애버린다”며 “<열반경>에 나온 설선동자가 시가 시상의 것이 되도록 받아들임으로써 진리를 깨닫는 붓다가 되고 완전한 자유의 해탈자가 된 것처럼 시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일깨웠다.

봄호에는 인드라망생협 이정호 상무의 ‘불교생명운동 입장에서 본 유언자 조차’, 나태주·공광규 시인의 신작시 특집, 박시교 시조시인 등의 시조, 동해 명찰 사찰 기행, 휴유연씨의 수필이 수록됐다.

도각 스님 월간 문학세계 시인 등단

도각 스님(前 태고종 사회국장)이 월간 <문학세계>의 12월호 신인문학상 시 부문에 ‘저녁별’ 등 5편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도각 스님의 등단작품인 ‘바라보기’ ‘바람 거두세’ ‘한얼의 빛’ ‘엄마의 가슴’ 등은 선과 명상을 시어로 녹였다.

윤제철 심사위원은 “깨달음을 통해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이미 달란된 경지에 오른 자유인의 마음 자체가 매우 눈길을 끈다”며 “부처님의 사상과 현대적 감각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어법으로 그만의 색채를 드러낸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시와 조화 이룬 또다른 찬불가

“3월 15일을 전후해서 제 시들이 팔라드풍의 노래로 만들어져 수록된 음반이 나왔습니다.”

수완 스님(현대불교문인협회 회장·사진)의 시 10편이 작곡가 진우의 곡과 노래로 불자들을 만난다.

이번 음반은 타이틀 곡 ‘오늘은 제비꽃’을 비롯해 ‘포행길에서 만남’ ‘불면’ ‘일출’ ‘낙엽 그리고 바람’ ‘천도’ ‘춧불을 세웠잖스’ ‘우리가 하나일 때’ ‘미궁’ ‘길이 되어 흐르는 강’ 등 10곡이 담겼다.

“시를 노래로 만드는 작곡가 진우와 인연이 꽤 제 시 15편을 골라 작곡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작업인데 지금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지요.”

다음카페 ‘시노래(종경)’를 운영하고 있는 진우는 여러 시인들의 시를 선별해 시 전체에 발

interview

‘오늘은 제비꽃’ 음반으로 수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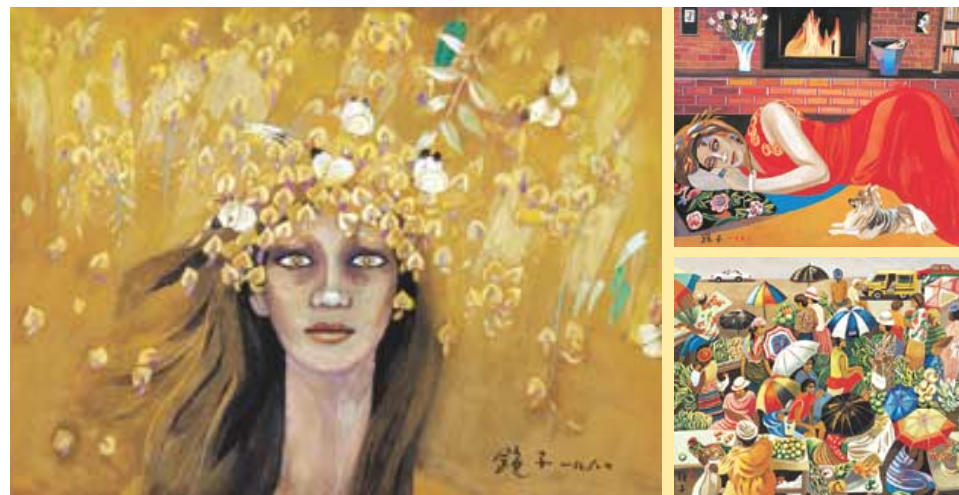


는 음악 역시 불교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어 웅장하고 무거운 찬불가와와는 또 다른 찬불가의 세계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라드풍의 음악을 입히는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 3개의 음반을 내기도 했던 진우가 이번에 수완 스님과 손을 잡은 것이다. 지난해에 진우는 제10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문정희 시인의 ‘연꽃’에 곡을 붙여 시상식에서 노래하기도 했다.

“이번 음반에서 가장 불교적인 곡은 ‘천도’인데 불교 합창단을 지휘하는 한 포교사가 음반이 나오면 이런 곡들을 불교합창단에서 불렀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정도로 주변의 호응이 좋다”는 수완 스님은 “살과 자연, 서정을 노래한 시들과 조화를 이루



천경자 화백의 작품 ‘황금의 비’(왼쪽), ‘볼티모어에서 온 여인’(위), ‘그라나다시장’(아래).

82세 맞아 미공개 작품 포함 250여점 선봬

‘천경자-내 생애 아름다운 82페이지’展 - 갤러리 현대, 4월 2일까지

‘내 생애 아름다운 82페이지’는 1924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천경자 화백이 82세를 맞아 공개하는 작품전이다. 1995년 호암갤러리에서 열렸던 대규모 개인전이나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천경자의 흔’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생전 마지막 전시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번 전시회는 천경자 화백의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귀한 자리이다.

천 화백의 드로잉과 작품 밑그림 등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 속에서 천 화백이 꿈꿔왔던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다. (02)734-6111

강지연 기자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불기2550년 봉축용품 지상기획전

봉축현수막

 봉축위원회 지정현수막 • 폭 90cm / 길이 6m (48,000원), 7m(56,000원), 8m (64,000원), 10m (80,000원), 12m (96,000원)

1년	부처님 오신날	13년	부처님 오신날
2년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14년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3년	우리도 부처님같이	15년	연등 접수합니다
4년	연등 접수합니다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 주문환영 기타 사이즈, 시안은 전화문의	
5년	가족을 부처님처럼	봉축어깨띠 ₩2,500원 100매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6년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부처님 오신날	
7년	연등 축제	부처님 오신날	
8년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버튼세트 ₩40,000원 100개 1세트	봉축리본 세트-일반 ₩25,000원 100개 1세트	모자(성인용) ₩3,000원	모자(아동용) ₩3,000원
장염 번(만장기) ₩40,000원		봉축카드 ₩600원 200장 이상 무료인쇄	
지하철(장염)현수막 ₩40,000원		No. 432, No. 670, No. 671, No. 672, No. 674, No. 675	